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2 FEB
Vol.229

신기술로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

삼정 KPMG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COVER STORY

스마트 세상을 주도하는
미래 성장 파트너

Future Trend

우리가 상상해오던 것들이 현실화되는 요즘,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2'에서는
전 세계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미래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역대 최다 수인 500여 곳이 참석해 친환경, 지속성장을 화두로
미래 혁신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시대의 흐름에 도태되지 않도록 삼정KPMG는 그 선두에 서서
우리 기업들의 스마트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현실과 가상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을 함께 열어갑니다.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FEBRUARY 2022 Vol.229
삼정KPMG 뉴스레터

QR코드를 통해 삼정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CES 2022를 통해 본 미래 ICT 산업 트렌드

08 Team Story
펀드 시장의 프리미엄 일반사무관리서비스,
AAS Fund Service팀

10 Client+
디지털 혁신 솔루션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선도하다!
공급망 관리 SW 솔루션 기업, '엠로'

행복한 일터

12 Market Reader
금융사, 생존 위해 '좋은 경험' 팔아라

14 Expert's Advice
ESG와 급부상한 환경산업, 트렌드 및 M&A 전망은?

15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KPMG Story 18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2022년, 어떤 시작을 준비하고 있나요?

삼정人터뷰 20
People First,
행복이 넘치는 본부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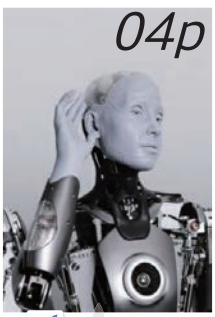
삼정별그램 22
취미가 수집! 삼정인의 수집 아이템 대공개

Smart Play 24
Tax5 정성민 부장
"깎고, 다듬고, 조립하고, 나무 통해 힐링해요!"

이동규의 두줄칼럼 26
공감은 21세기 자본이다

心 Care 28
"우리 선 넘지 말아요~!"
나와 당신의 심리적 영역 지키기

Samjong News 30
'Best PE Seller' & 'Best PE Buyer' 수상 外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CES 2022를 통해 본 미래 ICT 산업 트렌드

지난 1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첨단 기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세계 최대 종합 ICT 전시회이다. 올해 CES는 55회를 맞이하며 '일상을 넘어(Beyond the everyday)'라는 슬로건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됐다. 전 세계 2,2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이 중 한국 기업은 역대 최다인 500여 개가 참여하며 주최국인 미국(1,300여 개)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 … '스페이스테크·푸드테크·NFT'

CES 2022에서는 ▲로보틱스·AI(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그린테크·ESG(환경·사회·지배구조) ▲스페이스테크(Space Tech) ▲푸드테크(Food Tech)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벤처·스타트업 등 8대 트렌드가 부각됐다.

그 중 새롭게 등장한 '스페이스테크·푸드테크· NFT' 키워드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 2년 전인 CES 2020에는 미국 델타 항공과 우버가 CES에 참가해 항공 분야의 신개념 서비스와 에어택시를 선보인 바 있다.

올해 CES 2022에서는 항공을 넘어 우주까지 주제가 확장된 면모가 보였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Blue Origin)은 민간이 주체가 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CES 2022에도 다양한 테크 기업이 우주 시장 개척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잰걸음이 투영됐다. 미국 우주항공기업 시에라스페이스(Sierra Space)가 선보인 '드림 체이서(Dream Chaser)'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승무원과 화물을 수송하는 용도로 개발된 다목적 우주 왕복선이다. 독일의 보쉬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CES 2022를 통해 본 미래 ICT 산업'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영국 로봇기업 Engineered Arts -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Ameca)'
Photograph Source: Engineered Arts

(Bosch)는 우주정거장의 각종 기계가 내는 소리를 학습한 뒤 이를 분석해 기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센서 '사운드씨(SoundSee)'를 선보였다.

아울러 CES에서 부각된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식품의 생산 단계부터 가공, 요리, 배송, 음식물 쓰레기 폐기까지 전 과정에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결합되어 전통 산업을 트랜스포메이션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올해 CES에서 특히 강조됐다.

CES 2022는 기존 '가상자산 & 블록체인' 카테고리를 '가상자산 & NFT'로 올해부터 변경했다.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그대로 다루면서, 세부 영역인 NFT를 새로운 주제로 신설한 것이다. CES를 주최하는 CTA(미국소비자기술협회)의 브라이언 코미스키 산업 인텔리전스 담당자는 "NFT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넘어 금융 거래 자체를 증가시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디지털 헬스케어', CES 중요 어젠다로 부상

아울러 CES 2022의 혁신상 수상작 중 가장 많은 상을 받은 분야가 '헬스케어'로 떠오르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본격 도래를 알렸다. 이번 CES의 기조연설에서도 헬스케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코로나19 이후 헬스케어 산업이 더욱더 부상하며, CES 역사상 처음으로 기조연설자가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선정됐다. 미국 헬스케어 기업 애보트(Abbott)의 로버트 포드 회장 겸 CEO가 기조연설을 하며 "의료의 미래는 병원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며 "기술은 의료를 디지털화, 분산화하며, 환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에 대해 통제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로보틱스·AI’ … 가속도 내며 진화

로보틱스와 AI는 CES의 단골 주제로 자리를 잡았다. 사물을 인식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 데이터 학습을 통해 발전하는 딥러닝,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등이 결합되어 진화하는 로보틱스·AI의 혁신 기술이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가사 보조로봇 ‘삼성 봇 핸디’를 공개했던 데 이어 가정용 로봇 ‘삼성 봇 아이’ 또한 공개하며 사용자 맞춤형 가정의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능형 로봇’에 중점을 두며 지각 능력을 갖추고 인간 및 외부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로보틱스 기술로 주목받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개 스팟(Spot), 2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Atlas) 등과 함께 인간의 한계 극복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현황을 전 세계에 알렸다. 두산그룹의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을 선보이며 협동로봇이 스마트팜의 사과를 수확하고 포장하는 모습 및 로봇 드러머가 드럼을 치는 장면을 시연했다. LG전자는 가상인간 ‘김래아(Reah Keem)’의 가수 데뷔 앨범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김래아’와 같이 실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AI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상호 작용하며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CES에서 화제를 모았던 기업 중 하나는 영국의 로봇기업 ‘엔지니어드 아츠’이다. 엔지니어드 아츠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를 시연하며 인간과 매우 유사한 표정과 동작으로 화제를 모았다.

융합·확장하는 모빌리티 생태계

전통적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전기차, IoT(사물인터넷) 및 메타버스와의 융복합 등 모빌리티 분야의 사업을 확장하는 행보를 CES에서 이어갔다. 전기차 콘센트카를 선보인 메르세데스-벤츠와 스텔란티스(크라

CES 2022 트렌드와 이를 통해 본 미래 ICT 산업 전망

1 로보틱스·AI
- 산업용·가정용 로봇·가상 인간 등으로 진화하며 인간 삶에 접목
- 산업 및 인간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

2 디지털 헬스케어
- 코로나19 이후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및 서비스를 위한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중
- 의료의 미래가 병원을 넘어 확장되며 헬스 테크를 적용한 건강 모니터링·진단 부상

3 모빌리티
-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전기차, IoT(사물인터넷) 및 메타버스를 융복합
- 완성차 업체 외 조선 기업이 해양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는 등 모빌리티 외연 확대

4 그린테크·ESG
- CES 참가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에서도 환경 문제에 주안점을 둠
- 제품·서비스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지속가능성, 환경 친화적 혁신을 강조

5 스페이스테크 (Space Tech)
- CES 주제가 항공을 넘어 우주까지 확장
- 민간 기업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 개막과 함께 여러 테크 기업이 우주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 중

6 푸드테크 (Food Tech)
- 식품의 생산 단계부터 가공, 요리, 배송, 음식물 쓰레기 폐기까지 전 과정에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결합되어 전통 산업을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7 NFT (대체 불가능 토큰)
- CES 제품 카테고리에 NFT가 새로 생김
- NFT를 통해 창작자들이 만들어 낸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

8 벤처·스타트업
- 역대 최다인 210개의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CES 2022에 참가
- 삼성전자, 네이버 등이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다수 참가

미래 ICT 산업의 발전 방향은?

1. 기업의 타 업종으로 진출이 활발해져, 예상치 못한 변수가 늘어날 것
2. 지속가능성·ESG를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 가속화
3. 현실 세계와 가상공간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등 하이브리드 기술 강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이슬러) 등의 완성차 업체들은 한번 완충하면 보다 긴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을 발표했으며, 이와 더불어 더욱 고도화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선보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스마트 디바이스가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결돼 인간 이동 경험을 확대하는, 로보틱스와 메타버스가 결합한 '메타모빌리티(Metamobility)' 비전을 공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MoT(Mobility of Things) 생태계로 모든 사물에 이동성을 부여한다는 계획 또한 발표했다. CES 2022에서 소니(Sony)는 자동차 시장 진출을 전격 발표했다. 소니는 '소니 모빌리티'를 올해 봄 설립하며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겠다고 공개했다.

CES 2022로 본 미래 ICT 산업의 발전 방향은?

이번 CES를 통해 본 미래 ICT 산업의 발전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타 업종으로 진출이 활발해져, 예상치 못한 변수가 늘어날 것이다. 기업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파괴적 혁신 제품을 내놓는 동시에 기업이 보유한 원천 기술을 새로운 분야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늘려가고 있다. CES 2022에서도 가전 업계가 모빌리티 사업으로, 모빌리티 기업이 로봇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둘째, ESG·지속가능성을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넷제로(탄소중립) 실현을 필두로 한 환경 관련 그린테크, 인류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사회적 가치 증대 관련 테크 발전과 더불어,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셋째, 현실 세계와 가상공간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등 하이브리드 기술이 강화될 것이다. 비대면 환경이 뉴노멀이 된 시점에서, 현실 세계와 가상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메타버스 등 하이브리드 기술과 플랫폼이 고도화될 전망이다.

CONTAC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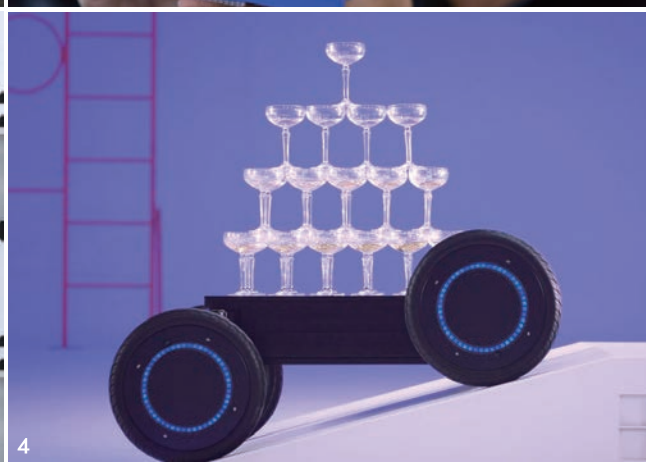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Tel. 02-2112-6744 E-mail. hyojunglee@kr.kpmg.com

1. Sierra Space -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승무원과 화물을 수송하는 용도로 개발된 다목적 우주 왕복선 '드림 체이서(Dream Chaser)'
   Photograph Source: Sierra Space
2. Bosch - 우주정거장의 각종 기계 소리를 분석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센서 '사운드씨(SoundSee)'
   Photograph Source: Bosch
3. BMW - 전자잉크(E-Ink)를 활용해 버튼을 누르면 차량 색상이 바뀌는 'iX 플로우'
   Photograph Source: BMW
4. 현대자동차그룹 - 배송, 레저용 차량 등으로 활용 가능한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MobED)'
   Photograph Source: 현대자동차그룹

1

2

3


4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펀드 시장의 프리미엄 일반사무관리서비스, AAS Fund Service팀

국내 사모펀드 및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삼정KPMG는 2005년 6월부터 AAS (Accounting Administration Services) Fund Service팀을 통해 펀드의 회계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펀드 시장의 프리미엄 일반사무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인 AAS Fund Service팀을 소개한다.

○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에 발맞춘 법률, 회계 규정 등 검토 필요해

최근 수년간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 및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으로 그간 금지되어온 PEF를 통한 부동산 투자, 개발이 펀드 운용의 자율성 개선 차원에서 허용됐다. 이에 자금 동원력이 풍부한 대형 PEF 운용사들의 경우 부동산 영역 중 물류센터를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판단해 관련 투자에 나설 준비를 하는 등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PEF의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독권 강화,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강화규정 등은 PEF 업계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PEF 업계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본격적 시행에 발맞춰 관련 법률 및 회계규정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경우 부동산 펀드(Real Estate Fund, 이하 REF) 및 부동산 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 수탁고가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20% 성장했다. 특히 리츠의 경우 상장 리츠가 양호한 배당수익률과 세제혜택,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펀드의 투자허용으로 인한 수요기반 확대 등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건설사 등에서 리츠를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로 진출하려는 러쉬(Rush)가 이어지고 있어 고객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이렇듯 리츠의 공모상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국내 대기업 등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유용한 자금조달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회계·세무 이슈까지 대응 가능한 하이 퀄리티 프리미엄 서비스 파트너!

AAS Fund Service팀은 20여 명의 전문 인력과 공인회계사들이 유수의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투자기관을 고객으로 하이 퀄리티(High Quality)의 '프리미엄 일반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AS Fund Service팀은 다른 펀드 사무관리회사와는 달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회계법인 산하에 있어서 그 특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펀드 일반사무관리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의 참여로 펀드 시장의 변화에 따른 회계·세무상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다양한 펀드 유형별로 특화된 전담팀을 두어 효율적이고 품질 높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외국계 운용사 및 투자기관에 대하여는 펀드 관련 기본 보고서는 물론 고객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양식의 보고서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외국 투자기관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여 다른 펀드 사무관리사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Team Story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믿음직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

AAS Fund Service팀은 앞서 주목한 시장 확대에 발맞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국내 Top-Tier로 성장한 대형 PEF 운용사의 업무 파트너로서 그동안 쌓아온 서비스 노하우를 현재보다 더욱 다양한 PEF 고객들에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REF 분야에서는 해당 운용사의 전체 운용펀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운용사 고객을 창출해 나갈 것이며, 리츠 부문의 경우 최근 수년간 강화한 서비스 역량을 토대로 상장 리츠에 대한 사무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으로,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니즈(Needs)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와 산출물을 만들어 나가려 한다. 이로써, 펀드 시장에서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믿음직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AAS Fund Service팀 제공 서비스

Accounting Service (회계 업무)

- 펀드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 업무위탁보수를 포함한 각종 보수의 계산 및 지급 관리
- 결산서류 및 부속명세서 작성
- 감사보고서를 위한 주석 작성 및 회계 감사 수검 지원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감독 당국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제공
- 투자자별 각종 국영문 재무 보고서 작성
- 법인세, 부가세 등의 세무신고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세금 납부 업무 지원 등

Administration Service (행정 업무)

- 이사회 및 주주(사원)총회의 운영 실무
- 명의개서, 출자이행 통지 등 발행주식(출자지분)에 관한 사무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공고), 청산사무 등
- PEF/SPC, REF, SOC펀드, 리츠 등 펀드 유형에 따라 고객 맞춤형 펀드 서비스 제공

'AAS Fund Service팀'의 각오 한 마디!

홍영준 상무이사
youngjunhong@kr.kpmg.com

"AAS Fund Service팀은 구성원 모두가 최고의 전문가로서 고객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항상 고객이 감동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래 상무
sungreacho@kr.kpmg.com

"AAS Fund Service팀은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상응하는 리스크도 증대되고 있는, 기회와 위기가 상존하는 시기에 시장과 고객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그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업무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백은영 매니저
eunyoungbaek@kr.kpmg.com

"AAS Fund Service팀은 지식과 경험을 구성원들 상호 간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하는 'Together', 그리고 고객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For Better'의 문화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High-Quality Service를 제공하겠습니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디지털 혁신 솔루션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선도하다! 공급망 관리 SW 솔루션 기업, '엠로'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엠로는 기업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국내 대표 AI 기업용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현재 자동차, 전자, 철강, 화학, 유통,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32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1,1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2021년 8월 13일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공급망 관리 디지털 혁신 소프트웨어 Provider

뉴노멀 시대,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요소로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엠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구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설립 이후 20여 년간 대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오며, 구매의 Best Practice 내재화를 이뤄왔다.

엠로는 HTML5 글로벌 웹 표준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구매혁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IoT,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엔진, 고성능 검색엔진 등 공급망 관리 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며 연평균 26%의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AI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AI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 특허 내역은 AI 머신러닝 기반의 '정보 제공 방법 및 장치', '아이템을 분류하는 방법 및 장치', '유사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는 방법 및 장치', '학습 모델을 사용한 정보 제공 방법 및 장치'다. 엠로는 '품목 기준 정보 관리', '비용 자동 분류', 'AI 기반 광학식문자판독기(OCR)', '지능형 수요예측', '지능형 재고관리' 등의 AI 기반 디지털 혁신 솔루션을 출시해 대기업 고객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업계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엠로는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한화 그룹 등 다수의 글로벌 대기업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도로공사 등 국내 대표 공기업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F&F, 하이브, 엔씨소프트, PI첨단소재 등 신흥기업과 금융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한 명실상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지난 2019년 GS칼텍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화학, 한화케미칼, 풀무원, ㈜대상 등 다양한 고객들에게 AI 기반 디지털 혁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이유는 AI 기술과 엠로의 구매 SCM 전문성이 조화를 이룬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디지털 혁신 솔루션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

엠로는 확고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 수행과 기술 기반의 매출 성장을 통해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도자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방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 신규 고객사를 빠르게 확보하고, 대기업 고객사의 클라우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의 디지털 혁신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지능형 수요예측 및 재고관리, 판매 소요 기간/가격 동적 예측 등 기업에게 가장 필요하고 실용적인 AI 기반 디지털 혁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1. 엠로 송재민 대표
2. 3. 4. 엠로는 가장 선진화된 Best Practice 디지털 구매 SCM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금융사, 생존 위해 '좋은 경험' 팔아라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세상에서 고객 경험만이 진정한 차별화(True Differentiator) 요소이다.'
- 아네트 프란츠, CX Journey Inc. 창립자 겸 CEO

금융사에게 고객 중심(Customer-Centric Culture)의 가치 창출을 경쟁력의 근간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금융사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제 금융사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생존의 해답은 고객에게 있다.

○ 금융사, 생존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금융사의 생존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하나의 정답만이 있을 수는 없지만, 금융사가 무엇보다도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분은 단연코 '우수한 고객 경험의 창출'이라 할 수 있다.

고객 경험이란 대면·비대면을 포함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고객 접점을 통해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업과 상호작용하며 겪는 경험을 의미한다. 고객이 느끼는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소비자 구매 의사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금융 비즈니스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금융사, 고객 경험 강화 어떻게 해야 할까?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겪는 고충을 이해하고, 자사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객의 목소리에 주목함으로써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최적화시켜 나가야 하며, 또한 서비스의 가치와 혜택에 대한 고객 체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은 출시 22개월 만에 가입자 누적 가입 건수 40만 건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신속한 사고접수 처리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편리한 서비스 방식과 탄 만큼만 낸다는 합리적 개념, 보험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후불제·정산제 도입을 통해 고객이 느끼는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합리적인 소비를 선호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와 부합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재미있는 금융(Fun금융)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서는 노력도 필요하다.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자는 금융에서도 재미있는 경험을 원한다. 따라서 금융사는 금융산업 내 변화된 소비 행태와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에픽(Epic)·엔터테인먼트적 요소 등을 접목하여 고객의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

고객 접점인 채널에 대한 접근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금융사의 고객 경험 강화 방안

고객 경험 강화의 시작, 고객 목소리 활용	금융서비스 합리성 및 체감 혜택 극대화	금융을 재미있게, Fun 금융	온라인은 속도, 오프라인은 피지털	기술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빠른 실행력과 속도를 갖춘 업무 체계
· 자사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시각 확보 · 고객 입장에서 고객 고충 이해 · 브랜딩 강화, 신사업 개발 등의 기회로 활용	· 서비스 가치와 혜택에 대한 고객 체감도 극대화 · 서비스 합리성 및 가성비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 고객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신선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 · 금융서비스를 친근하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제공	· 온라인: UI를 수시로 신속하게 개선하는 애자일 업무 체계 도입 · 오프라인: 온라인의 편리함을 오프라인 사업장에 결합(Phygital)하여 고객 경험 확대	· 기술 동향 및 글로벌 선진 금융사 기술 도입 사례 모니터링 · 신기술이 고객 경험에 미칠 수 있는 잠재력·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	· 고객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유연한 운영 체계 정립 · 현재의 정체된 조직 문화 및 업무 체계 개선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온라인·모바일 채널의 UI(User Interface) 관련 불편사항은 고객이 느끼는 체감도와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금융사는 수시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신속한 업무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오프라인 채널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의 편리함을 오프라인 사업장에 결합하여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피지털(Phygital, Physical과 Digital의 합성어)'을 검토하고 적극 활용하여 빅테크·핀테크와 차별화되는 대면 서비스의 장점을 적극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블록체인, 인공지능·머신러닝, 오픈 AP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데이터 애널리틱스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적절한 활용은 고객 여정(Customer Journey)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는 고객 경험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기술에도 집중해야 하며, 기술의 발전 트렌드 및 유용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탐색하고 고객 경험 강화를 위한 기술 투자에도 주안점을 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자일(Agile)한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업계의 새로운 경쟁자인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경우, 파악된 고객 니즈를 통상 1주 단위로 상시 시스템에 반영한다. 소비자가 브랜드를 바꾸는 것(Brand Switching)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은 결국 자신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충족시켜주는 기업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사에게 애자일한 운영 체계로의 전환은 어렵지만 매우 시급한 과제다. 속도에서 뒤처진다면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서비스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앞으로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인 고객 경험 강화에 집중하고, 고객 중심 문화를 내재화하여 고객의 반응에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사가 미래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정KPMG 공식 YouTube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디지털본부
이희정 상무
Tel. 02-2112-7814
E-mail. hrhee1@kr.kpmg.com

경제연구원
곽호경 수석연구원
Tel. 02-2112-7962
E-mail. hokyungkwak@kr.kpmg.com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Expert's Advice

ESG와 급부상한 환경산업, 트렌드 및 M&A 전망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환경 관련 시장의 관심 역시 커졌다. 지난 10년간 환경 관련 기업의 가치는 2배가량 올랐고, 환경 섹터 M&A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삼정KPMG 에너지·환경·자원개발 분야 전문가를 통해 환경 산업의 트렌드와 향후 M&A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Q1 최근 환경 산업의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최근 ESG가 여러 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르면서 환경 관련 산업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폐기물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많지 않은 데다 경기 흐름을 덜 타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폐기물 시설은 대표적인 님비(Not In My Back Yard) 시설로 최근 10년 사이 관련 시설이 거의 늘지 않았으나, 현재는 기업가치가 두 배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10년 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배수가 6~7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13~15배 정도 수준입니다.

Q2 그렇다면, 폐기물 M&A가 영업이익 멀티플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 매물의 희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전에도 멀티플은 6~7배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10년 전보다 2배 가량 올라갔습니다. 과거 10년간 폐기물 매립장 중 새롭게 생긴 회사들도 많지 않았고, 사모펀드들의 볼트온 과정에서 멀티플이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둘째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소각장 이익률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 매립장은 70%에서 80% 정도 되는 상각 전 영업이익률을 냅니다. 특히, 경기의 영향을 크게 타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을 이 정도로 창출하는 산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향후 환경 산업 부문 M&A 전망은 어떠한가요?

ESG가 일시적 트렌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큼에 따라, 폐기물 업계 1, 2위가 모두 바뀌더라도 환경 산업 관련 M&A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재활용 섹터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활발한 M&A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환경과 관련해 가장 큰 분야가 재활용입니다. 현재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80%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20%가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페비닐 및 페트병을 말레이시아나 중국 같은 곳으로 보냈지만 이젠 그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 사모펀드들이 재활용 회사들에 대한 투자 기회를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Deal Advisory4 이동근 전무
Tel. 02-2112-7764
E-mail. dlee@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2021년 11월 11일 게재된 아주경제 '[M&A전문가에 묻다-②환경] 메가트렌드 ESG M&A, 폐기물 다음은 재활용'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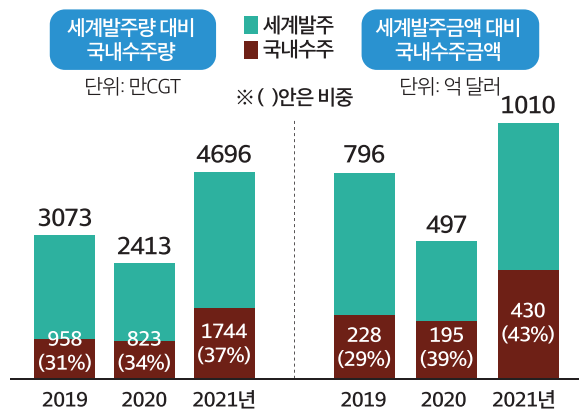
우리가 알면 좋을 시사 및 경제 상식을 전하는 '맛있는 경제'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현상 등으로 생겨난 용어의 의미를 짚어본다. 또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역대 최고 수주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살펴본다.

韓 조선산업, 8년 만에 최대 수주… 고부가·친환경 선박 세계 1위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지난해 1744만표준선환산톤수(CGT)를 수주해 2013년 1845만CGT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수주 1위를 달성하는 등 조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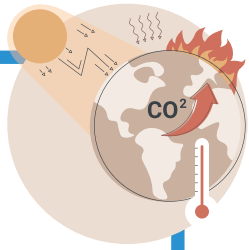
수주실적

※2021년 전 세계 발주량·금액은 2021년 11월까지 누적 발주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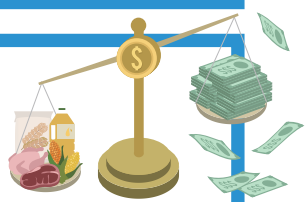
자료 : 클락슨

국제 메탄서약 (Global Methane Pledge)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한 기후변화 행동조약으로, 이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이자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 메탄서약에 동참하기로 하고, 부문별로 감축량 목표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농축수산물 250만t, 폐기물 400만t, 에너지 180만t의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메탄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다른 온실가스가 가둘 수 있는 상대적인 열의 양을 나타내는 지수)는 21, 즉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21배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스킴플레이션 (Skimpflation)



물가는 상승했지만, 오히려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현상이다. 영어로 '인색하게 굴다', '찔끔주다' 등의 뜻을 지닌 스킴프(skimp)와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외신에 따르면 앨런 콜 이코노미스트는 "스킴플레이션 현상이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가 산출하는 물가 통계에선 이런 현상이 반영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킴플레이션은 음식점, 주유소, 백화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비자가 알게 모르게 마주치는 현실이다. 과자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용량은 은근슬쩍 줄었다든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주문했는데 당초보다 훨씬 오래 걸려 배송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모두 스킴플레이션의 일환이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Happy workplace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KPMG Story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2022년, 어떤 시작을 준비하고 있나요?

18

삼정人터뷰

People First,
행복이 넘치는 본부를 소개합니다!

20

삼정별그램

취미가 수집!
삼정인의 수집 아이템 대공개

22

Smart Play

Tax5 정성민 부장
“깎고, 다듬고, 조립하고, 나무 통해 힐링해요!”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공감은 21세기 자본이다

26

心 Care

“우리 선 넘지 말아요~!”
나와 당신의 심리적 영역 지키기

28

Samjong News

‘Best PE Seller’ &
‘Best PE Buyer’ 수상 外

30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2022년, 어떤 시작을 준비하고 있나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KPMG Story>에서는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이벤트를 통해
삼정인들이 일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이번 호에서는 삼정인들이 2022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세운 계획을 위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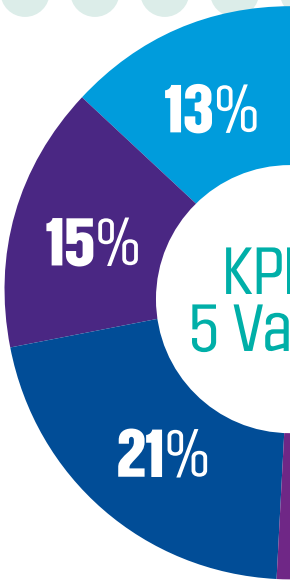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에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Excellence'

2022년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삼정인들은 2022년
어떤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까? 후회 없는 한 해를 위해,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에서 삼정인이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이벤트에
참여한 96명의 삼정인들은 가장 'Excellence(3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서 'Courage'와 'Together'가 21%, 'For Better' 15%, 'Integrity' 13%를
기록했다. 이처럼 임인년을 맞이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함께 성장을
이뤄가고자 하는 삼정인들의 용기 있는 시작을 힘차게 응원해본다.

- Excellence
- Courage
- Together
- For Better
- Integrity

* 복수 응답



KPMG Story

강민지 Associate (CM2)

올해 세운 계획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법인에서 제공하는 EF 온라인을 통해 영어 회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 러닝 크루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러닝하고 싶어요. 끝으로 친구들과 유기견 보호소를 다니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For Better', 'Excellence', 'Together'의 가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의 시작이자 회계사로서의 시작을 삼정KPMG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해요! 첫 시즌 후회 없이 보내고, 회계사로서 기반을 잘 닦아 나가고 싶어요. 업무 외에도 제가 정한 목표들을 지켜내며 내공을 키워 갈게요! 2022년 파이팅!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김병준 Consultant (SCG)

새해의 시작과 함께 영광스럽게도 삼정KPMG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면서, 나중에는 없어서 안 될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3개의 가치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먼저, 해외 KPMG 임직원과 협력하는 Global 헬스케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Together'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팀의 식구로서 병원과 헬스케어 기업들에게 유의미한 가치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For Better'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해요. 끝으로 꾸준히 성장에 대한 욕심을 내면서 'Excellence'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민선 Manager (Tax6)

저는 매번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올해 이루고 싶은 다짐을 적어봅니다. 커리어부터 작은 생활 습관까지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사항을 두서없이 적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적어 두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며, 이룬 건 무엇이며, 이루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봅니다. **2022년에는 역량 강화(Excellence)에 초점을 맞춰 커리어적으로 이루고 싶은 성과를 목표로 세우고, 실천하고 싶어요! 또, 제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며, 올바른 일(Integrity)을 해내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심미관 S.Analyst (Deal Advisory1)

저는 2022년에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읽을 계획이에요. 요즘에는 전문화의 시대를 넘어 각 분야가 서로 융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교양을 쌓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Excellence' 가치로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하며, 'For Better' 사회와 미래에 의미 있는 일을하고 싶어요.** 아직 독서가 낯설지만, 천천히 다가가 보려 합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신동식 S.Consultant (Digital)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가는 과도기에 서있는 단계에서, **저는 존경받는 리더십을 키우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올바른 방향에서 위로는 인정을, 아래로는 신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에게 올해는 진취적이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Courage)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러닝 소모임 (B&F1)

▲자유로운 소통으로 진행된 회의 시간 (DA2)

▲메타버스로 진행된 신년회 (MCS2)

People First, 행복이 넘치는 본부를 소개합니다!

슬기로운 법인생활! 소통과 Care 문화 이끄는 본부

B&F1 서정혁 상무

'함께 뛰고 함께 크는 B&F No.1'을 슬로건으로 정한 우리 본부는 '소통과 Care'를 통한 조직문화를 지향하고 있어요. 우리 본부의 자랑은 '원활한 소통'과 '자발적 Care'라고 생각해요. 우리 본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본부원과의 소통 강화인데요. 작년의 경우 본부장님께서는 본부원들과 1:1 면담을 함과 동시에 본부 파트너들이 3회 이상 본부원들과 미팅을 하고, PM과의 대화도 주기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본부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를 계획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본부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후배를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아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후배에게 업무 내외적 챙겨주고, Care 한 사례를 많이 봤고, 이러한 문화는 매년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법인 전체적으로 공유된 '슬기로운 법인생활'의 경우도 새로 입사하는 후배를 생각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시작했던 건이었죠. 비록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본부원 모두가 모여 활동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동기별 혹은 팀별로 소모임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왔어요. 와인, 등산 등 다양한 모임 활동으로 유대감이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PPC Officer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소통과 Care 문화를 확대하여 지금보다 더욱 행복한 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본부장님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앞으로의 우리 본부가 더욱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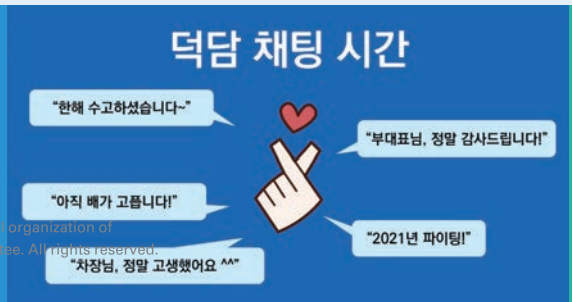
업계 유일무이한 통합본부! 1:1 멘토링 등 자유로운 소통으로 하나 되는 본부

Tax6 이영호 Director & 오영빈 Director

우리 본부는 업계 최고로 인정받는 TP(Transfer Pricing)와 관세가 통합된 업계 유일무이한 본부입니다. 통합본부인 만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직원들로 구성되어, 개성 넘치는 본부원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본부원이 있다는 것은 다른 점과 새로운 생각도 많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다양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 본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지향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다양한 소통 모임을 갖고 있어요. 먼저, 반기별로 본부원이 함께 모여, 법인에 대한 Vision과 본부의 목표 등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요, 1:1 멘토링을 통해 구성원들과 더욱 깊이 소통하고 있죠. 본부장님, 파트너분께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소통을 위해 식사 모임 등을 통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고 있어요. 특히 신규 입사자가 있을 때, 본부장님께서 직접 교육에 나서 업무적 기반을 잘 다지게 도와주세요. 끝으로 PPC Officer로서 본부원들을 잘 살피고, 표정이 어둡거나 힘들어 보이는 본부원에게는 우리들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눕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PPC Officer로서 본부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업무에 몰두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행복한 일터를 위한 여정을 본부원 모두와 함께해 낼 수 있다는 점이 영광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신입 삼정인을 위해 제작한 슬기로운 법인생활 (B&F1)

▼랜선 송년회 - 덕담 채팅 시간 (DA2)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부: 엑티비티 이벤트 맵!

▲2021 송년회에서 공유한 프로젝트 (MCS2)

삼정KPMG는 인재의 행복을 위한 존중과 포용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매년 GPS(Global People Survey)를 진행한다.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통해 장점은 강화하고, 개선 사항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GPS 스코어가 가장 많이 오른 본부의 PPC Officer*를 만나, 행복한 조직문화를 엿보려 한다.

* PPC Officer: 각 본부의 People, Performance, Culture를 책임지고 있다. 법인 생활의 선배로서 후배들의 커리어, 인간관계를 살뜰히 챙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Mix & Match!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업하며!

Deal Advisory2 유희준 S.Manager

다양성을 존중하고 업무 유연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문화! 우리 본부는 본부원들의 다양한 배경지식과 전문성을 시의적절하게 Mix & Match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로 나아가고 있어요. 특히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하고 본부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협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본부입니다. 코로나19로 근무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요즘, MS Teams를 활용해 업무와 일상의 소통을 높이고,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사회적 교감은 본부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송년회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어요. 깜짝 이벤트를 마련해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등 본부원들도 변화에 공감하고, 적응해 주고 있어요.
저는 양질의 소통만큼, 소통의 횟수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통의 트래픽을 늘려서, 조금 더 솔직한 의견 교류가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메타버스에서도 현실에서도! 워라밸 지키는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

MCS2 이혜령 Director

약 200여 명의 본부원을 하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본부는 5개 팀으로 PPC Officer를 운영하고 있어요. 팀별로 다양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본부원들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 문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휴가를 통한 Refresh 시간을 갖도록 하는 등 웰빙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한, 신규 입사자들이 본부 내 잘 적응하도록 돕고,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있어요. 지난해 Teams로 진행된 송년회에서 신규 입사자들의 환영 인사와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본부 내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유하며 서로의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물론 게임을 통해 Big 재미도 챙겼답니다. 또한 게더타운을 활용해 메타버스 신년회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동료, 선후배와 소통하며 주저하지 말고 본부 내에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유연한 본부 문화가 형성되는 MCS2본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등산 소모임 (B&F1)

▲지방출장 소모임 (B&F1)

▼소규모 팀별 신년회를 Teams 라이브로 공유 (Tax6)

▼랜선 송년회 - New Joiner 소개 시간 (DA2)

▼소규모로 열린 신년회 (Tax6)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취미가 수집! 삼정인의 수집 아이템 대공개

수집은 꽤 오랜 시간 취미 활동으로 자리 잡아 왔다.
다른 이들에게 아주 사소한 물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보물이 된다고 한다. 삼정인들은 어떤 물건을 수집하고 있을까?
삼정인들의 다양한 수집 아이템을 소개한다.

Timbre Cœur (프랑스 밸런타인데이 우표)

황윤정 S.Consultant (RCS)

영국에서 공부하며 친해진 프랑스 친구를 통해 밸런타인데이 우표에 대해 알게 됐어요. 프랑스 우체국 La Poste는 2000년부터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해 에르메스, 샤넬 등 프랑스 명품 브랜드에서 디자인한 하트 모양의 우표를 발행해왔어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우표라고 생각되어 2013년부터 수집을 시작했어요. 친구가 해마다 신년 선물로 한국에 밸런타인데이 우표를 보내주는데, 올해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도 어른도 좋아하는 실바니안 패밀리

정지혜 Manager (B&F2)

실바니안 패밀리는 토끼나 귀여운 동물을 테마로 한 소품, 인형의 집 등 방대한 세트 장난감으로 아이도, 어른도 좋아하는 키덜트 인형 놀이입니다. 소품이 워낙 다양하고 귀여워서 이것저것 사게 되었는데, 저와 두 딸들보다 남편이 귀엽다면서 수집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파견 기간 수집한 미국&캐나다 지역별 머그컵

이현승 Director (B&F3)

2014~2017년 KPMG 미국 뉴욕에 파견 근무하던 당시, 주말과 휴가를 이용해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여행하면서 수집한 스타벅스 머그컵입니다. 지역의 해당 주나 도시 전경을 그린 컵을 수집했는데, 저는 당시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총 74개의 머그컵 중 68개의 컵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FC서울 축구 유니폼

김용희 S.Consultant (SCG)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팀인 FC서울의 유니폼을 모으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팀의 축구 유니폼을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약 10년 전쯤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의 경기를 보게 된 것을 계기로, FC서울의 팬으로 10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매년 새로 나온 유니폼을 한두 장 모으게 된 것이 어느새 10장 가까이 됐네요.

삼정블그램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6년 넘게 모아온 헌혈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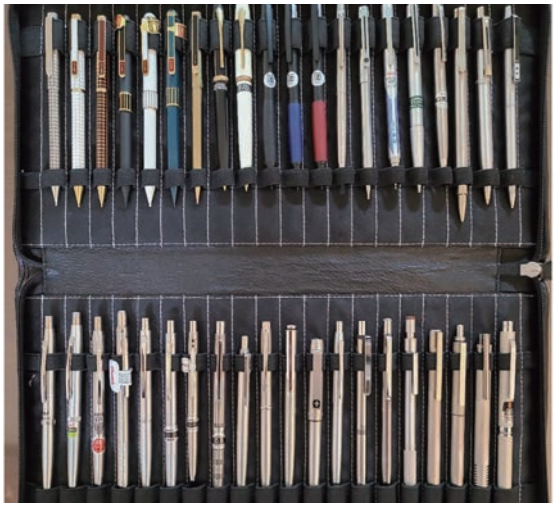
우현제 Analyst (Deal Advisory4)

2015년부터 현재까지 헌혈을 하고, 그 헌혈증을 계속 수집하고 있어요. 헌혈증이 모인 것을 보면 꾸준히 했다는 생각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헌혈을 잠시 쉬었지만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각종 샤프펜슬

신준호 Consultant (RCS)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펜텔社의 고급 샤프 한 자루가 학교에서 친구들의 이목을 끌었고, 그 뿌듯함으로 샤프 수집을 취미로 삼게 됐어요. 주로 유명 문구 기업들(Pentel, Pilot, Rotring 등)의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빈티지 제품들을 150점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할 기회를 얻어 한곳에 모아 사진을 찍어보니 정말 뿌듯하네요!



추억을 담은 카세트 플레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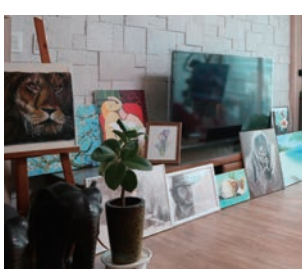
정용훈 상무 (B&F3)

어느 날, 책상 서랍 속에서 낡은 워크맨을 발견했어요. 한때 가장 소중했던 보물 1호였는데, 언젠가부터 잊고 지냈죠. 좋았던 추억의 노래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오래전 갖고 싶던 다른 워크맨 기기들이 생각났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집하기 시작했고, 30년이 흐른 지금 다시 또 제 보물 1호가 되었어요. 물론 아내와 아들을 제외하고요!

직접 그린 그림들

최종헌 인턴 (ADC)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수집은 아니지만, 저 자신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모으고 보관하는 것도 수집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계사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2차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2달의 공백기를 몇 해에 걸쳐서 갖게 됐어요. 매해 여름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시작한 그림 그리기가 이제는 제 그림을 수집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수집한 그림을 보고 좋은 기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ax5 정성민 부장
“깎고, 다듬고, 조립하고, 나무 통해 힐링해요!”

배우 강동원, 유연석, 이천희 등 남자 배우들의 공통된 취미가 있다! 바로 목공이다. 연예인뿐 아니라, 최근에는 목공을 취미로 하는 취목족들이 21만 명을 넘어섰을 만큼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취미이다. 이번 호에서는 싱크대, 침대, 소파 등을 만드는 프로 목수 정성민 부장을 만나, 목공 라이프에 대해 들어본다.

1

2

사소한 계기로 시작된 목공 라이프

요즘 취미가 목공인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취목족’이라고 부르는데, 정성민 부장이 취목족이 된 것은 아주 사소한 이유에서였다. 더치커피를 즐겨온 그가 직접 더치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더치 추출 유닛을 구매하려는 것에서 발단이 되었다.

“더치커피를 집에서도 즐겨 보고 싶어서, 더치 추출 유닛을 구매하려니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러던 중 과학 교구와 더치 추출 유닛 틀만 있으면 완성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치 추출 유닛 틀을 만들기 위해 목공예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가 2014년 4월 즈음이었는데, 그 작은 시작으로 지금까지 목공을 취미 삼아왔다는 게 저조차도 신기하네요. 하하.”

목공 시작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전동공구부터 구매했다. 장비가 있으니 목공을 만드는 접근이 쉬워졌고, 그 후 장모님의 추천으로 평상을 만들며 첫 번째 목공품을 완성했다. “저만의 목공 작업실이 처가댁 옥상에 마련됐어요. 처가댁 옥상에 둔 전동공구를 보시고, 장모님께서 ‘정 서방, 가족들이 쉴 수 있는 평상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라고 말씀해 주셔서, 첫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그의 목공 스승은 인터넷이었다. 인터넷으로 평상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 A4 용지에 설계도를 그린 후 작업했단다. “그동안 제가 목공을 배운 적도 없고, 별도로 공방을 다닌 적이 없어 의지할 곳이라곤 오로지 인터넷이었죠. 인터넷에 목공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관련 서적을 찾아 읽으며 독학해왔어요.”

그러던 중 2018년에 우연한 기회로 1년간 전문 교육 공방에서 무료로 목공 관련 기초를 이수하고, 목공지도사 3급 자격증도 취득하게 됐다. 이제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는 당당히 프로 목수라 부를 만큼 그가 완성시킨 목공품도 다양해졌다. 주걱, 도마, 우든펜, 목침, 바둑판 등 나무 소품을 비롯해 싱크대, 침대, 소파, 식탁 등 나무 가구까지 손수 만든다고.

그런 그가 가장 기억에 남은 작품은 편백으로 만든 뒤주라고 한다. "첫째 아들이 처가댁에서 놀다가 항아리 쌀독을 깨뜨린 바람에, 편백 뒤주를 만들게 됐는데요, 사실 뒤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많이 막막했어요. 인터넷으로 뒤주를 관찰하고 머릿속으로 분해하고, 조립해봤어요. 그러다 엑셀로 제 나름의 설계도를 그리고, 뒤주 조립에 필요한 나무를 가공하고, 조립하며 완성했지요. 우여곡절 끝에 만들고 나니, 꽤 뿌듯했답니다."

무에서 유! 취향에 맞춰 만드는 재미

"목공의 가장 큰 매력은 제 이 두 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직접 제 손으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몰라요!" 정성민 부장은 목공을 하고 있을 때는 복잡한 생각들이 잠재워지고, 나무를 만지는 그 시간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 생각한 대로 잘 될 때도, 안될 때도 있지만 나무를 만지는 그 순간을 오롯이 즐긴단다. 무엇보다 가족들도 목공 취미를 응원한다고 한다.

"목공을 접하고 나서, 기성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던 거 같아요. 가족들이 원하는 스타일과 사이즈에 맞춰 가구를 만드니 가족들 역시 취미를 응원해요. 재작년에 집 싱크대의 상부, 하부 벽장을 모두 만들었을 때, 아내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만들었어요. 사용할 때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아내 키에 맞춘 높이, 수납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수납장을 만들고, 접이식 아일랜드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무엇보다 더 좋은 점은 평생 AS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하하."

목공을 통해 교류하고 기부도 하고파!

정성민 부장은 목공을 통해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비쳤다. "코로나19 이전에 법인에서 진행한 삼정 사랑나눔 바자회에서 직접 만든 우든 펜을 기부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만든 나무 소품을 좋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이 되더라고요.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바자회가 열린다면 기부도 하고, 목공에 대한 교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목공을 취미로 하는 삼정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목공동호회도 신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는 요즘 조금은 느리더라도 깎고, 다듬고, 조립하며 나무로 힐링하는 정성민 부장처럼 목공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삼정인들의 취목을 응원해 본다!

1. 손수 만든 싱크대 앞에서 활짝 웃는 정성민 부장
2. 처가댁 옥상이 그의 작업 공간이다.
3. 아내를 배려하여 만든 싱크대, 우드로 만든 도마도 눈에 띈다.
4. 삼정 사랑나눔 바자회에 기부한 우든펜
5.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편백 뒤주

정성민 부장이 전하는 목공 취미로 즐기고 싶다면?

1. 경험해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원데이 클래스를 검색해서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조언을 듣자. 최근 목공인구가 많아져서 주위를 둘러보면 목공을 하는 지인을 찾을 수 있으니 그분들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취미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 공구(수공구, 전동공구)를 구매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가성비를 생각해서 저렴한 공구를 구매했다가 나중에 이중 지출되기 쉽습니다.

3. 천천히 안전하게! 시작했다면 천천히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모든 공구를 안전하게 다루는 법부터 습득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다치게 되는지도 꼭 알아야 합니다. 조급하면 금방 질리고 힘만 들고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목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구(수공구, 전동공구)를 다루는 것이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꿀 팁입니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공감은 인간만의 유니크한 무기다.
나는 공감한다, 고로 존재한다.

공감은 21세기 자본이다

물체 간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 한다면, 인간 사이에 당기는 힘은 바로 '공감력'이다. '공감(empathy)'이란 1909년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티치너(Edward B. Titchener)가 도입한 용어로 감정이입을 뜻하는 독일어 'einfühlung'의 번역어이다.

동서양 공히 공감(共感)의 주된 영역은 기쁨보다는 슬픔 내지 아픔에 있다. 인간의 '마음(心)'이란 이름의 판도라 상자 안에서 남의 고통과 슬픔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은 기쁨을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여기서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수준이 바로 공감력이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란 흉측한 말도 알고 보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이란 뜻이다.

우리가 늘 쓰고 있는 'sorry' 또한 'sore'가 어원이다. 즉, "나도 아프다"라는 거다. 상대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눌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은 통하는 법이다. 사람들이 결혼식에는 안 가도 문상은 꼭 챙기는 이유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공감력이란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와 능력(리얼 피드백)이다.

바야흐로 지적자본, 매력자본을 넘어 '공감자본'의 시대가 열리고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있다. 지금까지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었다면, 21세기 초지능융합사회에선 '공감'이 새로운 자본이다. 막강한 인공지능(AI)에 비해 인간만이 가진 유니크한 장점이 바로 공감능력이기 때문이다. 이건 AI 탑재 로봇이나 메타버스 세계의 아바타로서는 접근 불가의 난해한 감성영역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개인적 영역이었던 공감은 향후 사이버공간을 포함한 공적 영역의 주된 탐구 대상이 되고 있어 초연결시대의 공감 소통은 인간 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AI가 수능 만점을 기록하고, 현대 물리학 논문을 쓰는 수준에 이르는 등 인간의 학습과 업무영역 대부분을 침공해 들어옴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하고 있다. 내 직업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나만 잉여인간으로 전락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최근 흐름은 사뭇 다르다. 인간은 과소평가되어 있고, 반대로 로봇은 과대평가됐다는 것이다. 다만 우수한 사람의 기준이 바뀐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컨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건은 판례조사나 변론서 작성 능력이 아닌 클라이언트에 대한 높은 경지의 공감력 여부다.

<리더십 4.0>의 핵심 컨셉도 극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탁월성과 성과주의로 상징되는 기존의 엘리트들은 몰락하고 새로운 공감형 리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특히 X세대는 '목표'를 지향하지만, MZ세대는 '공감'을 지향한다.

공감이 있으면 문화가 되고, 공감 없이 지시만 있으면 제도가 된다. 조직의 엔진인 직원 역량은 조직 내 가치공유도(value sharing) 내지 공감도와 정비례하며, 공감은 최종 성과를 만드는 기초원료가 된다. 요컨대 공감은 조직 구성원의 실행을 여는 열쇠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리더의 조건은 공감문화 제작자가 되어야 한다. 장차 CEO의 정의 또한 'Chief Empathy Officer'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나는 공감한다. 고로 존재한다."
결국 공감이란 경청으로 시작하여 감동으로 끝나는 감성여행 길이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공감형 인간일까?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을 움직이는 50인'에 등재된 교보 광화문글판에 두줄칼럼 중 대표작 <겸손>이 최종 선정되어 주요 도시에 전시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칼럼(부제: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우리 선 넘지 말아요~!”
나와 당신의 심리적 영역 지키기

“당신, 지금 선 넘네?” 일반적으로 나와 상대방이 지켜야할 선이 있다. 그 선을 넘었을 때, 기분이 언짢아지고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대방과 나 사이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상대가 나의 경계를 넘어왔을 때, 또 내가 상대의 경계를 넘어갔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내 심리적 영토를 지킬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한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해주는 조언이 뭘까? ‘너무 신경 쓰지마’ 혹은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와 같이 상처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전제로 한 말이다.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듣는 사람 마음을 다잡는 것이 더 수월하리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

그러다 ‘상처주는 말을 한 사람’으로부터 요인을 찾고자 하는 심리학적 시도가 대중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했다. 정서적 뱀파이어*, 프레너미**(frenemy) 등 친밀한 관계 내에서 심리적 불편감을 만들어내는 ‘상처주는 사람’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용어가 거창하지만 실제 대화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좋은 회사 가더니 자기가 뭐 라도 되는지 아나 봐?, “그 동네 집을 샀다고? 자네 생각보다 부동산에 대한 감이 없는데?”와 같은 말들이 상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말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무례한 걸까,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너무 예민한 걸까? 이 정도 말쯤은 친한 사이에 으레할 수 있는 말인데, 내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정서적(에너지) 뱀파이어: 다른 사람의 긍정적 에너지를 마치 뱀파이어처럼 빨아먹으며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사람을 일컬음.
**프레너미: 친구(friend)와 적(enemy)의 합성어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지만 장난이라는 핑계로 시기, 공격적인 행동을 함.

Care

나와 상대의 경계선 찾기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한 가지로 ‘나와 상대의 경계선을 찾기’를 꼽고 싶다. 자신의 심리적 영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 나와 상대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관계에서 교류하는 여러 생각이나 감정 중,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과 상대에게서 비롯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간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는데, 한 친구가 저더러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냐, 니가 돈 걱정 없이 살아서 뭘 잘 모르나 본데"라고 말을 꺼내서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친구 자신의 투자가 얼마나 수익 났는지 한참을 얘기하길래 들어주고 나니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어요. 요즘 들어 그 친구만 만나면 뭔가 모르게 기분이 나빠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불쾌하기도 하고 '진짜 내가 뭘 잘 모르나', '친구는 저렇게 자랑을 하는 걸 보면 나도 친구처럼 했어야 하나' 등의 생각이 들 수 있다. 물론 이 사례에서 나의 불쾌함은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친구가 던진 불쾌함이다. 불쾌함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객관적으로 구분해 보자.

이 사례의 친구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상대방을 저평가함으로써 본인의 불안감을 해소해 자신의 우위를 확인 하려는 것뿐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무례하거나, 친하다는 이유로 내 사적인 부분에 대해 과도하게 평가하며 내 판단조차 흐리게 한다면 내 심리적 영역을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친사회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불편감을 표현하자. "방금 그 말, 무슨 의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방금 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정도면 그만이다. 이런 표현 이후로도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이다.

내가 상대의 심리적 영역을 넘어가버렸다면

나 자신 역시 상대방의 심리적 영역을 넘어갈 수 있다. 내 선택을 합리화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가진 것을 깎아내리거나 빈정댔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내가 상대방의 심리적 영역을 넘어간 것을 인정하기'다. 내가 '선을 넘었다'는 것이 못나게 느껴져 이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다. 그렇지만 정말 부끄러운 것은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덮어두며 정당화하는 것이다.

내가 상대의 심리적 영역을 넘어간 것을 느꼈다면,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너무 평가하듯 말했어"라고 인정하면 가장 좋다.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너무 어려운 분들은 일단 '나도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보자.

상대의 요인에서 생긴 상처를 거듭 생각하며 분석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치유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의 힘은 고통에 적응하고, 불편한 관계를 참아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의 경계선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보호함으로써 진정한 마음의 힘이 길러진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에서 상담, 위기 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정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Best PE Seller’ & ‘Best PE Buyer’ 수상

삼정KPMG가 지난 1월 26일 언론매체 더벨이 주최한 ‘2022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ague Table Awards’에서 ‘Best PE Seller’, ‘Best PE Buyer’ 두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삼정KPMG는 2021년 잡코리아 매각 건으로 BEST PE 투표 회수 부문 1위를 기록해 ‘Best PE Seller’로 선정됐으며, 2021년 진행된 테일러메이드 인수 건으로 BEST PE 거래 투표 투자 부문 1위를 얻어내며 ‘Best PE Buyer’로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 ESG 주관사’ 선정

지난 1월 27일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제19회 대한민국 IB대상’에서 삼정KPMG가 ‘최우수 ESG 주관사’로 선정됐다. 삼정KPMG는 지난해 SK에코플랜트가 인수한 폐기물 업체 6곳 중 4곳의 포괄자문을 진행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 ESG 자문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삼정KPMG는 SK에코플랜트의 EMC홀딩스 인수 당시 구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디디에스·도시환경·이메디원·그린환경기술 등 4곳의 인수과정에서 인수자문, 재무실사, 세무실사, 가치평가 등 포괄자문을 진행했다. 친환경사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각단가, 인허가 등 M&A를 위한 고려사항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특히 이번 거래는 소수주주 지분을 포함한 지분 100% 인수, 일반·의료 폐기물 등 2개 업종의 딜 동시 진행, 전국 소각장 전수 현장실사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KPMG가 후원하는 리오나 매과이어, LPGA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 우승

KPMG가 공식 후원하는 골프선수 리오나 매과이어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드라이브 온 챔피온십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리오나 매과이어는 투어 데뷔 3년 만에 첫 승이며, 특히 아일랜드 출신으로는 미국 LPGA 투어 첫 우승이라 의미가 깊다. 리오나 매과이어는 합계 18언더파 198타(66 · 65 · 67)로 렉시 톰슨(미국)을 3타차로 제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그녀는 자신의 첫 LPGA 우승에 대해 "마치 꿈만 같다"라며 "이번 대회 플레이에 대해 스스로 매우 자랑스럽고, 이러한 경기를 펼치도록 도와준 많은 이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우승 소감을 전했다.

'2022 KPMG 아이디어톤' 설명회 열려

지난 1월 27일 '2022 KPMG 아이디어톤' 설명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KPMG 아이디어톤'은 삼정KPMG가 주최하는 대학생 아이디어 대회로, 올해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솔루션 개발'을 주제로 2월 22~23일 양일 개최된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류에 합격한 총 10팀을 대상으로 MS Teams로 진행됐으며, 이동석 부대표가 ESG에 대해, 양현석 전무가 Lighthouse 조직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대회 심사기준, 코치, staff 소개 등 국내 대회 진행 방식이 안내됐으며, 실시간 Q&A를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다.

*Contact: 이다연 대리 dayeonlee@kr.kpmg.com

사랑나눔

장애인·한부모 소외계층 지원 나서

삼정KPMG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한부모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먼저,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 2022년 한 해 동안 저소득 가정 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는 '뇌병변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삼정사랑나눔회는 2018년부터 서울시 저소득 가정 뇌병변 장애아동들의 수술비 및 재활 치료비를 지원 중이며, 올해도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1천만 원을 후원한다. 이와 함께 행복얼라이언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잇마플과 협력해 어려운 이웃에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지원하는 '서울시 장애한부모가족 행복도시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서울 내 부모 혹은 자녀가 장애인인 한부모 가정 7가구를 선정해 주 5일분 밑반찬 4종을 매주 1회, 13개월간 정기 후원하는 특화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를 이어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otice]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 **주제:** 2022년도 개정세법 주요 개정 사항 • **일시:** 2월 17일(목) 14:00 ~ 17:20 • **장소:** 온라인 웨비나(Webinar) 진행
- **신청:**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문의:** 황지연 대리(02-2112-0960, jiyeonhwang@kr.kpmg.com)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www.kpmgacademy.co.kr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